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신임 사무총장 환영

2017.1.4,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은 2017년 1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한 포르투갈 출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신임 사무총장을 환영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어젠다 추진을 위해 사무총장과 유엔 내 고위급 팀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오랫동안 의지를 보여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을 지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정하며 이를 세계 평화와 안보와도 연결시켜왔다.

2011년 11월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는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를 결정지을 도전과제이다. ... 강제이주의 규모와 복잡성을 더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기후변화로 분쟁, 정치 불안정, 자연 및 기후 재해 등 이주의 원인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GCF는 한국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 비준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 리더를 결집시켰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산다.

기후변화를 위한 보편적 연대 창출은 반 사무총장의 중심 어젠다였다. 사무총장은 GCF 설립 지원과 2014년 GCF 초기재원조성 당시 1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선진국이 자금공약을 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주었다.

GCF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4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원문 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welcomes-new-united-nations-secretary-general-antonio-guterres?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